

# 광주신세계, 지역농축산물 직거래 대폭 늘린다

### 최대 50%까지... 상품전·홍보 판촉행사도 '식품바이어 시스템' 가동... 농어업인 지원

광주신세계가 올해부터 매장 내 신선식품에 대한 지역농가의 산지 직거래 비중을 늘리고 직거래 상품전과 홍보 판촉행사도 확대하는 등 지역 농·축·어업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4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과일 직거래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품목별로 매장 내 산지 직거래 비중을 최대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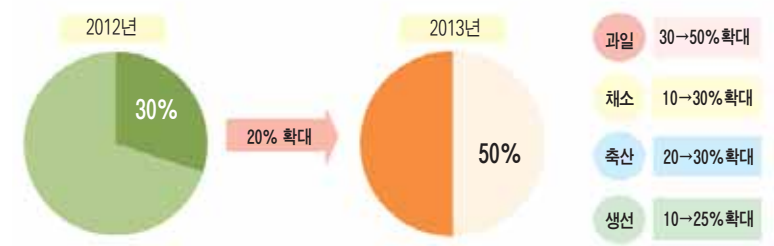
채소는 10%에서 30%로, 생선은 10%에서 25%로, 축산 품목은 20%

에서 30%로 각각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신세계 식품바이어 시스템'을 가동, 매달 산지를 방문해 지역 농·축·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들여올 계획이다.

지난해 창경과 곡성 현지를 식품바이어가 직접 방문해 우수한 품질의 딸기와 멜론을 직매입·판매하는 등 지역 산지와 활발한 직거래를 통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도움을 주었다.

2013 광주신세계 산지 직거래 확대 계획



개점초기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식품바이어 시스템'은 지역 내의 여타 업체들처럼 각 분사에서 지점에 할당하는 물량을 공급받지 않고 바이어가 직접 산지와 공판장을 방문해 우수 상품을 선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농축어민들과의 직거래를 성사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농축산물 유통시스템

이 '농가→산지수집장→도매시장→중간 유통업체→백화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광주신세계는 식품바이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산지를 방문해 우수한 상품을 선별하고 이를 직접 들여오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단계를 2~3단계 가량 축소한 '농가→지역협력사→백화점'의 구조를 실현한 것이다.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지역농가와와 윈윈(Win-Win)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점 초기부터 '식품바이어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며 "향후에도 지역상생을 실현하는 생산자 중심의 유통별 맞춤형 직거래 상품전을 다양하게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개점 초기부터 매년 20여개 시·군의 특산물전을 열어 지역 우수 상품의 판로개척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2011년 11월에 개최된 강진군 특산물전에는 5일간의 행사기간 12여억원에 이르는 판매실적을 기록해 기업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사례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농협전남본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결의

### 농축협 균형발전 다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3일부터 이틀간 구례교육원에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전남도 내 153개 조합장, 시군지부장 및 농정담당, 지역본부 팀장 이상 간부직원, 계열사 사장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도내 농축협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업 추진 마인드 향상, 조합장간 의사소통 확대, 정보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농축산물 판매액 3조 6000억원 달성 ▲햇빛(채소), 야

미(과일) 광역 브랜드 육성 ▲연합 및 공선출하 각각 2000억원 매출 ▲수급불안품목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전남쌀 브랜드 육성 및 판매 확대 ▲품목 다변화로 농산물 2500만 불 수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협플 주유소, 비계통연합구매, 농기계사업 확대 ▲가축 질병 사전예방으로 청정축산 실천 등을 결의했다.

박중수 본부장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전남농협이 앞장선다는 각오로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며 "활력이 넘치는 농업인 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을' 권리찾기 임법 실현 광주중소상인, 서명운동

6월 임시국회를 맞아 광주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을'의 권리를 찾기 위한 임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위원장 김용재)는 5일 광주시 동구 중앙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중소상공인·중소상인 살리기 8대 임법 실현을 위한 600만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상인단체는 불공정거래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부 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부 설치 등 '2대 정책요구안'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8대 임법요구안'의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상인단체는 "최근 편의점주, 대리점주, 동네슈퍼사장 등 중소기업인들의 잇따른 자살 사태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내수 침체와 대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전국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인단체는 "대리점에 대한 슈퍼갑의 횡포를 부린 남양유업 사례처럼 광주에도 규제를 피해 상품 공급점으로 변종 입점하는 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출이 골목상권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9곳, 롯데슈퍼 3곳 등 총 12곳의 대기업 상품 공급점이 진출해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통합RPC 시설현대회 완료

농협 광주본부는 4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 광주통합미국종합처리장(RPC)에서 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농협과 광주시는 통합미국종합처리장이 노후화돼(1995년 11월 준공) 고품질 쌀 생산에 어려움을 겪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음식점 고등어·갈치·명태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 수산물품질관리원, 표시기준도 강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고등어, 갈치, 명태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나치, 미꾸라지, 뽕자이 등 6개 품목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돼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계산관에 음식명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섞었으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하고 수족관에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진열한 경우에도 수족관 앞면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 "20대 93.5% 스마트폰 보유"

### "가장 중요한 매체" 정보통신부 보고서

우리나라 2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3.5%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스마트폰을 TV 대응으로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매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4일 발표한 '스마트세대 20대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보고서에서 20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매체로 스마트폰(50.2%), PC·노트북(31.2%)을 꼽았다고 밝혔다.

TV를 필수 매체로 선택한 20대의 비율은 15.9%로 10대(20.6%)보다 낮았다. 이는 40대(58.7%), 50대(81.0%), 60대 이상(92.9%)이 TV를 선택한 것과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대는 스마트폰으로 TV, 영화, 기타 동영상 등을 즐기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특성을 보였다. "스마트폰 이용 이후 TV 등 전통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도 10.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노트북을 포함한 PC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20대의 51.7%가 "줄었다"고 답했다.

20대는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는 경우로 '이동 중'(57%),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며'(39.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집에서'라고 답한 비율도 26.5%에 달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5월 주식 거래량·대금 감소

### 각각 10.89%·10.43% 줄어

광주·전남 지역의 5월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의 '5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은 4억1577만주로 전달보다 10.89%(5081만주), 거래대금은 2조6505억원으로 전달보다 10.43%(3088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거래량 비중은 2.41%로 전달(2.43%)보다 소폭 감소하고 거래대

금은 1.75%로 전달과 같았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미래산업, 금호종금, SH에너지화학, KODEX레버리지 등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이화전기, 국제다와이, 제일바이오, 태창파로스, 팜스토리 등의 순이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KODEX레버리,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자, 가이차 등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 대한뉴팜, 차바이오텍, 서울반도체, 루멘스 등의 순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ECO GEO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013 04.20-10.20

주최: 순천시, 광주일보사  
주관: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주)아리오커뮤니케이션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NH농협, 수협, NH농협 광주지역본부, NH농협 전남지역본부, KIA 자동차, 2015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호남 지역 농·축·수 특산품과 함께하는

# 제2회 아줌마 축제

2013 06.07-06.09 3일간 | 순천 팔마경기장

행사안내

**첫째날** 6월 7일(금요일) 축하공연 19:00~21:00  
시군예술단공연 | 다문화가족 장기자랑(예산) | 시낭송대회 | 농산물개장식 | 식전공연(넌타) 개막식 |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둘째날** 6월 8일(토요일)  
시군예술단공연 | 나도스타 | 다문화가족 장기자랑(본선) | 아줌마가요제(예선) | 추억의7080콘서트

**셋째날** 6월 9일(일요일)  
시군예술단공연 | 아줌마골든벨 | 완상의 매직쇼 | 아줌마댄스 경연대회 | 아줌마가요제결선 |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공연참여신청 <http://cafe.daum.net/azim2> 문의사항 062-220-0555